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

양 기 덕(Kiduk Yang)*

신 다 예(Daye Shin)**

〈 목 차 〉

I. 서론	3. 콘텐츠 형태별 현황
II. 선행연구	4. 콘텐츠 유형별 현황
III. 연구방법	5. 검색 필드별 현황
1.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범위 설정	6. 분류 필드별 현황
2.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분석항목	7. 제공 서비스별 현황
IV. 분석 결과	8. 이용대상별 현황
1. 기관별 운영 현황	V. 결론
2. 콘텐츠 시기별 현황	

초 록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그동안 보존을 위해 공개되지 못한 전통기록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전통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전통기록물의 유통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목록을 구축한 후, 운영 주체별로 분류하고 정렬하였다. 또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콘텐츠를 시기별, 형태별, 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검색 필드와 분류 필드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대상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105개의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전통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서지정보,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번역본을 전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16.1%에 불과했으며, 상세검색을 제공하는 곳은 49.5%로 아직 국내 전통기록물의 유통과 서비스 현황이 미흡하며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전통기록물,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ABSTRACT

Traditio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 has greatly improved accessibility to users by providing internet access to the digitized form of traditional records, access to which have previously been restricted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cessibility and serviceability of Korean traditional records by examining current traditional record information systems in Korea. After compiling a list of traditio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s, which were grouped by operating agency, we analyzed them by coverage period, document type, and content format as well as examining search options and browse categories. We also categorized and examined the information systems by user type. The result showed that out of 105 traditio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s serving various content types and services, only a fraction(16.1%) provid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that includes bibliographic information, annotated description, content image, content text, and translated text, and less than a half(49.5%) provide a detailed search, all of which point to a less than optimal conditions for access to traditional records and suggest a strong need for improved traditio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s in Korea.

Keywords: Traditional records, Traditio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iyang@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sunset1007@k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91-217, 2016. [http://dx.doi.org/10.16981/kliiss.47.201612.191]

I. 서론

전통기록물이란 인간이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종이나 나무, 금속, 돌 등에 문자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고지도(古地圖), 책판(冊版), 금석문(金石文)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기록물에 기록된 내용은 유적·유물과 함께 기록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그동안 전통기록물은 ‘물리적으로 소실되거나 훼손되면 다시 만들 수 없고 복원이 힘들다는 특징’(김승우 2015, 1)으로 인해 공개가 제한되거나, 공개되더라도 특별 전시전과 같은 형태로 짧은 기간 동안 자료의 일부만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기록물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깊숙이 보존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통기록물을 훼손 없이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나 국내 전통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통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넓혀 전통기록물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며, 연구자들에게 전통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후 진행될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지식정보자원¹⁾의 디지털화를 장려하며 국가DB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전통기록물 관련 국가DB 사업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디지털고문헌실’ 등이 있다.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전통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사이의 간극을 좁혔고, 그동안 보존을 위해 공개되지 못한 많은 자료들을 전 세계에 공개하였다. 이는 ‘자료의 공개성과 보편성 확보를 통하여 연구가 활성화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식 공유의 민주화를 이루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남권희 2003, 327).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이 제공 중인 전통기록물의 시대정보와 형태사항과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유형 및 검색 기능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기록물의 유통과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전통기록물 유통 및 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는 어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7항: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목록을 구축한 후, 정보시스템을 운영 주체별로 분류하고 정렬하였다. 조사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콘텐츠를 시기별, 형태별, 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검색 필드와 분류 필드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대상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II. 선행연구

전통기록물의 정의는 학자 또는 전공마다 조금씩 다르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편이다. 전통기록물이란 인간이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나 나무, 돌 등에 문자 또는 그림을 새기거나 기록한 모든 것으로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고지도(古地圖), 책판(冊版), 금석문(金石文)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기록물의 다른 표현으로는 고문헌(古文獻)과 고(古)기록물이 있다.

강순애(1997)는 고문헌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고서에 제한되어 쓰지만 넓은 개념으로는 고서, 고문서, 기타자료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며, 고서의 동의어로 ‘고전(古典), 전적(典籍), 고적(古籍), 고본(古本)’, 고문서의 동의어로 ‘문권(文券), 문계(文契), 문기(文記)’, 기타자료로는 글씨, 그림에 관한 자료가 주류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문헌의 범주를 지역적으로는 동양에 한정되며, 언어는 한자, 고대한글,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 청어 및 고대 동양의 여러 언어에 속하고, 연대는 언어의 체계가 바뀐 1900년에서 1910년 이전으로 정했다.

김승우(2014)는 고문헌을 ‘고서(古書), 고전적(古典籍), 고본(古本), 고간본(古刊本), 고사본(古寫本), 귀중본(貴重本), 희귀본(稀貴本)’ 등과 같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1910년 이전에 펴낸 간본(刊本), 사본(寫本), 문서류, 형태적으로 죽간, 목독, 권축장, 선풍장, 호접장, 포배장, 선장 등, 제작형태에 따라서는 필사본과 간본으로 나누고 간본을 다시 활자본과 목판본, 활자본은 목활자본과 금속 활자본으로 나누었다.

김길수(2014)는 기록물을 ‘물체 상에 문자, 부호 또는 형상으로 의사 또는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생산 시기에 따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는 고기록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은 근대기록물,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는 현대기록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고기록물은 고전적(古典籍), 고문서(古文書), 서간(書簡) 등으로 구분하고, 고전적은 ‘넓게는 종이와 문자로 된 모든 기록을 말하며, 좁게는 책을 의미하는 것’, 고문서는 ‘특정한 주체가 어떠한 용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의 대상에게 전달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긴 것을 총칭하는 것’, 서간(書簡)은 ‘전적과 고문서를 제외한 예술과 사상을 필자가 직접 글자로 표현한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서예(書藝), 간찰(簡札)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한편, 전통기록물 정보화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고문헌, 고기록물에 대한 기본 개념 정의, 전통기록물 소장 기관 현황 조사 및 기관별 DB 구축 현황 분석,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 제안 등의 흐름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강순애(1997)는 고문헌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기관별 고서목록 정리현황을 분석했으며, 효율적인 전산화를 위해 주도 기관 선정 및 기관 네트워크 형성, 국가의 지원, 목록 규칙안 개발, 연구진 등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하위 서브시스템으로 목록시스템, 해제시스템, 원문정보시스템, 검색정보시스템을 제안하고, 각 시스템에 대한 상세 설명을 덧붙였다. 구축사례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남권희(2003)는 한국학 자료 정리·보존·개발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정부기관, 연구기관, 상업기관, 대학교별 고문헌 DB구축 사업 현황과 해외 소재 한국학 고문헌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산정보화의 문제점을 기관별 시스템의 디지털화 수준 및 제공 정보의 수준의 차이, 중복입력에 따른 경제적 손실, 검색시스템 접근 방법의 미비, 고문서 정리에 대한 표준화 미비, 주관 부서의 혼란과 전담 기구의 부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 지적하며, 고문헌 종합목록 DB구축 및 국가 중앙 조정기구 설치, 정보화 자료의 유통과 공개 및 전산화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조형진(2006)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한국국학진흥원, 대학도서관(국·공립/사립), 전문도서관의 고문헌 소장 자료 현황을 조사하고,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문헌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기 위한 연합조직인 국립디지털 도서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가지식정보통합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고문헌 디지털화의 국가 정책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다.

안상민(2007)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서비스 형태와 검색기능을 살펴보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북대학교 박물관(현, 호남기록문화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의 고문서 소장 현황 및 분류 체계,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기록물 특성에 맞는 기술요소 제공, 고문서 분류체계의 개선, 이미지뷰어와 웹 사이트 및 고문서 이미지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김길수(2014)는 고기록물의 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료의 가공정도, 자료접근의 용이성, 정보검색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정보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기록물 정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LOD기반 정보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승우(2014)는 반구조적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디지털 원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고문헌 소장 기관 중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DB구축 정도, 원문 서비스 현

황, 서지 수준, 해제 제공 유무, 시소러스 또는 색인어 제공 및 주제별·가나다순·사부분류별 리스트 제공여부, 기관 외부 서비스 제공여부, 기관별 예산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만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통계』 또는 『국립대학도서관보』와 같은 통계 자료를 활용한 기관별 소장 자료 및 디지털화 현황 분석 또는 단위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세부 조사를 위해 연구 기준에 맞는 기관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두 번째로 수집된 시스템을 조사하여 분석 항목 등을 도출하였다. 정보시스템 범위 설정은 대표적인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 시스템의 관련 사이트와 연계 사이트를 수집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분석 항목은 각 정보시스템 별로 제공하는 전통기록물의 특징과 정보 서비스들의 속성 정보를 수집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 및 분류하였다.

1.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범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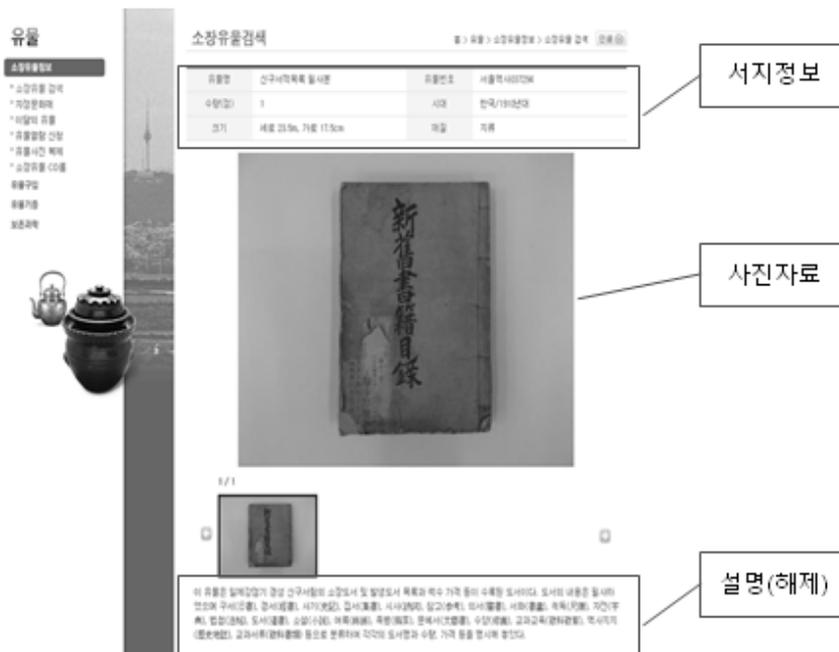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전통기록물의 서지정보,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번역문 등을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또는 웹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통기록물의 기준 시기는 1910년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포함하여 1945년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고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또는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엄격히 시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이트가 여럿 존재하며, 일제 강점기의 기록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수가 많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1910년 이후 자료만 있는 경우는 따로 표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4장에 다루었다.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조사 방법은 대표 사이트인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국가기록유산’을 기준으로 각 사이트의 하위 사이트 또는 관련 사이트, 연계 사이트를 링크를 조사한 뒤, 각 링크별 하위 사이트, 관련 사이트, 연계 사이트로 범위를 확장하며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찾은 정보시스템은 주로 연구소, 대학도서관, 박물관이 운영하는 사이트 위주였으며, 대중회에서 제공하는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성씨별 족보 시스템과 같이 개인 또는 종친회 단위의 정보시스템은 제외하였다.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범위에는 전통기록물이 아닌 고려청자나 경복궁 같은 유물이나 건축물, 사적지 등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트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그림 1> ‘서울역사박물관’과 같이 전통기록물이 소장 유물 중 일부분만을 차지하여 자료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고서와 고문서에 대한 설명과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검색 화면

또한 상위 사이트의 메뉴 또는 카테고리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하위 사이트의 경우, 클릭 시 새 창으로 뜨고 새 창 안에 새로운 카테고리(또는 글로벌 내비게이션)가 있는 사이트는 새로운 사이트로 계산하였다. 즉, <그림 2>와 같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포털’ 첫 화면에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의궤 · 왕실족보 · 일기 · 등록’ 옆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르면 ‘한국학자료센터 장서각’ 사이트가 열리는데, 이 때 각각의 사이트를 개별 정보시스템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2> 한국학자료포털(좌), 한국학자료센터 장서각(우)

2.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분석항목

자료 조사는 2016년 8월, 9월 2달간 진행하였으며, <그림 3>의 분석항목을 기준으로 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3>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분석항목

운영기관은 사이트 메인화면 로고 또는 하단의 사이트 정보 부분에 표시된 기관을 기준으로 하였고, 운영기관의 상위 기관이 있으면 상위 기관별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운영 구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기관 당 평균 정보시스템 보유 개수 등을 알 수 있다.

시기는 소장 자료 현황 또는 사이트 소개에 소장 자료의 정확한 연도가 표시된 경우 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를 제공하지 있지 않아 이런 경우, 상세검색 또는 분류 필드의 연도별 검색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와 가장 최신 자료를 수작업으로 검색하였다. 연도 미상인 자료는 및 연도별 분류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콘텐츠 형태는 고서, 고문서와 같이 전통기록물의 물리적 형태사항을 분류한 것으로, 전통기록물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인 고서, 고문서, 고지도, 고신문, 책판(목판, 활자 모두 포함)을 위주로 조사하고 나머지 반차도, 도설, 금석문, 금석문 탁본,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교과서, 연구자료, 연표, 멀티미디어, 3D이미지와 같은 자료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단, 목판으로 인쇄하여 책으로 엮은 인경본과 같이 최종 형태가 책(冊)의 형태인 경우 고서로 분류하였고, 낱장으로 된 기록물은 고지도를 제외하고 고문서 분류체계와 관계없이 모두 고문서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의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건축도면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고문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고지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고문서로 분류하였다.

한편, 고문서와 고지도의 경우, 제본되지 않은 낱장의 종이로 이루어져있다는 외형적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여, 외형적 측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지도를 고문서의 범위에 포함해야 하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다른 항목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서 또는 고문서에서 추출된 반차도와 도설의 경우, 원본 형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해당 항목을 따로 분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전통기록물 형태사항의 분류 체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유형은 각 전통기록물 항목에 대해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로 서지정보,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번역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특히 원문이미지는 원문이미지 유무와 뷰어 설치 여부, 인쇄 가능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한편, 해제는 사이트에 따라 ‘상세 설명’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었으나, 해제의 기능이 전통기록물의 저자나 내용, 출판 연도 등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모두 해제에 포함하였다.

검색 필드는 이용자가 키보드를 활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해 자료를 찾는 항목을 의미한다. 자료 조사 초반에는 상세검색 안의 세부 필드도 모두 조사하였으나, 정보시스템에 따라 또는

전통기록물의 형태사항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 통합검색, 상세검색, 다국어입력으로도만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류 필드는 각 전통기록물 시스템이 전통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네비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키보드 작업 없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의미한다. 분류 필드 또한 검색 필드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과 전통기록물 형태사항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 유사한 항목을 10개의 큰 항목, 즉 디렉토리, 제목, 용어, 시기, 인명, 지역, 형태, 주제, 사부분류, 기타로 묶어서 조사하였다.

디렉토리는 정보시스템 자체에 ‘디렉토리 분류’ 또는 ‘디렉토리 검색’이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 체크한 항목으로 아래 항목이 이 디렉토리 항목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렉토리 항목은 제목, 용어, 시기, 인명, 지역, 형태, 주제, 사부분류, 기타보다 상위 단계이다. 제목은 서명, 경명(대장경판),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건축도면명 등 전통기록물의 명칭과 관련된 모든 필드를 포함한다. 용어는 사전DB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조선시대 왕실문화도해사전’의 표제어 필드와 ‘한국 근대 신어DB’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기는 연도, 시기, 시대 등과 관련된 모든 필드로 연도별, 시기별(선사, 고구려, 백제 등), 편년(왕대별), 일자별 필드를 모두 포함한다. 인명은 저자, 소장자, 편저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독립운동가와 같은 인물별, ‘승정원일기’의 개수자·개수전거·찬자, ‘조선왕조실록’의 관인별·신분별·관직별, ‘한국족보자료시스템’의 성씨별·본관별,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발신자·수신자 등 인명과 관련된 모든 분류 필드를 포함한다.

지역에는 작성지역, 소장지역, 인물의 본적·주소 검색, 전통기록물 속 지명, 간행처 등 지역이나 주소와 관련된 필드를 포함했으며, 형태에는 콘텐츠 형태와 같이 고서, 고문서 등 형태사항별로 분류한 경우를 포함했다. 주제는 같은 유형 자료에 대해 사용용도, 내용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즉, ‘내 고향 역사알기’의 부제안 및 면제관련 문서/부군 폐합 관련 문서/면 폐합 관련 문서철/행정 구역 및 명칭 변경과 같은 경우 또는 ‘조선왕조실록’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별 분류와 같은 경우 주제 분류 필드에 포함하였다. 사부분류는 전통기록물을 분류하는 고유한 분류체계로 따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의 고려장 분류체계·신수장 분류체계,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의 죄명검색, ‘국가기록유산’의 종목별(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세계기록유산, 일반문화재), ‘목판 아카이브’의 서체별과 같이 제목, 용어, 시기, 인명, 지역, 유형, 주제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 모든 분류체계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한편, 분류 필드는 자료 목록이 나올 때까지 단계가 2단계인 경우, 즉 시기별로 분류한 뒤 다시 주제별로 분류한 경우 시기별, 주제별 필드에 동시에 체크하였고, 1차 분류에 시기별, 주제별 필드가 섞여 있을 때에도 각각 체크하였다. 예를 들어, ‘지적아카이브’는 ‘일제강점기

기록'과 '정부수립직후 기록'으로 분류한 뒤, '토지조사사업 관련', '임정문서'와 같은 주제별 분류 필드를 눌러야 자료 목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와 '주제'에 동시에 체크하였다. '규장각 원문검색시스템'은 편년사-왕명별/책별, 왕실자료, 고도서, 근대자료, e-규장각 자료총서, 고지도-지도별/책별, 고문서, 책판, 해제와 같이 1차 분류에 시기와 형태별 분류가 섞여 있으면 따로 체크하였다.

정보시스템별 제공서비스는 전자지도, 인기검색어, 메모, 책갈피 기능 등 매우 다양하나, 그 중 자주 등장하는 용어사전, 한자사전, 다국어 서비스를 따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제공 서비스로서의 용어사전은 정보시스템 내에서 해당 정보시스템에 쓰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국어 서비스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페이지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용대상은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인용은 상세한 해제와 번역문을 제공하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분류 필드를 확인하여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나 인터넷 강의 자료 등을 통해 전통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반대로 전문가용은 해제가 없거나 너무 어려운 경우, 원문이미지만을 제공하거나 독특한 분류 체계를 이용해 배경 지식 없이는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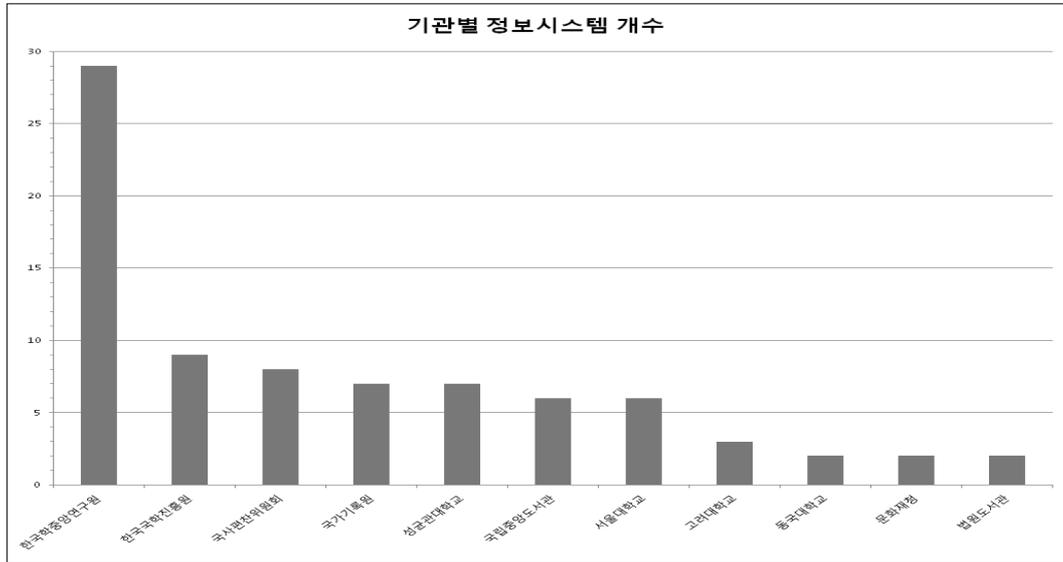
IV. 분석 결과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2달 간 조사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총 105개이며, 목록과 사이트주소는 상위 기관명 - 운영기관명 - 사이트명 순으로 정렬하여 부록 1에 수록하였다.

1. 기관별 운영 현황

조사한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은 주로 국가기관, 전통기록물 소장기관, 전통기록물 연구소, 대학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총 35개의 상위 운영 기관 중 가장 많은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총 29개의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한국국학진흥원 9개, 국사편찬위원회 8개, 국가기록원과 성균관대학교 7개,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6개, 고려대학교 3개, 동국대학교, 문화재청, 법원도서관이 2개, 나머지 24개 기관은 1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중에는 '국내외에 산재한 각종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고, 표준



〈그림 4〉 기관별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개수

화된 형식으로 가공·집적하여 한국학 지식 콘텐츠를 구축’(김명자 2012, p.184)하는 한국학 자료센터 구축 사업²⁾의 일환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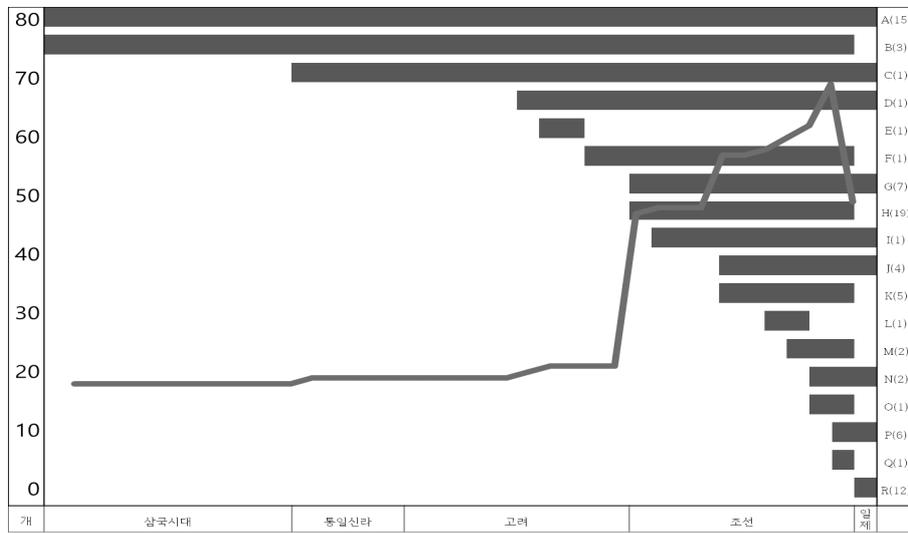
2. 콘텐츠 시기별 현황

총 105개의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중에서 시기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시스템은 83개이다. 소장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시기별 검색 또는 정렬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의 경우 정확한 연도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그림 5〉는 시기 정보가 있는 83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콘텐츠 시기별 정보시스템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붉은 색의 꺾은선 그래프는 각 시간별 시스템 수의 총합을 표현한 것이며, 파란색의 막대그래프는 각각의 막대가 표현하는 시기 범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수를 나타낸다. 한편, 막대그래프에는 막대마다 알파벳(A~R) 기호를 부여하고 괄호 속에 시스템 개수를 표시하였으며, 각 시기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표 1>로 정리하였다.

2) 한국학 자료센터 구축사업은 중앙허브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6개의 권역센터, 즉 규장각 국가전적자료센터(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장서각 국가전적자료센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강남권 한국학자료센터(강원대학교),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영남권 한국학자료센터(한국국학진흥원), 해외 권역센터(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로 구성된다. 이 사업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 자료포털’,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 ‘한국학자료센터 조선시대 한글편지’,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한국학자료센터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한국학자료센터 호남권’,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지리지 종합정보’ 및 ‘의례 종합정보’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그림 5〉 콘텐츠 시기별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표 1〉 〈그림 5〉의 막대그래프 시기 범위별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목록

시기(개수)	사이트 번호
A(15)	5, 25, 28, 29, 31, 36, 37, 40, 50, 53, 80, 85, 87, 100, 103
B(3)	62, 65, 81
C(1)	34
D(1)	35
E(1)	3
F(1)	32
G(7)	6, 44, 48, 58, 68, 71, 105
H(19)	1, 22, 27, 41, 46, 47, 49, 64, 66, 69, 70, 76, 77, 78, 79, 83, 92, 96, 102
I(1)	33
J(4)	2, 17, 26, 39
K(5)	10, 24, 52, 61, 97
L(1)	88
M(2)	91, 93
N(2)	11, 63
O(1)	90
P(6)	19, 30, 38, 42, 74, 98
Q(1)	4
R(12)	7, 8, 9, 12, 13, 14, 20, 43, 60, 73, 89, 95

제공 중인 전통기록물의 시기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자료만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 19개(H)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를 자료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15개(A), 일제 강점기 자료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12개(R) 순이다. 분석 결과, H, A, R 이 세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 시기별

사이트 개수 또한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A), 고대부터 일제 강점기(B)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제공하는 전통기록물 중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이후 자료이다.

이를 통해 고려 이전의 전통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전통기록물 중에 가장 많은 자료가 보존되고 있는 시기가 조선 시대, 특히 조선 중기와 조선후기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제 강점기 자료까지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49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자료로는 조선총독부 관보,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 당시 발간된 신문 등이 있으며, 이 시기에 생산된 다수의 기록물은 ‘근대적인 인쇄술이 보급되어 일시에 많은 인쇄물을 생산’(김길수 2014)할 수 있어, 이전 시대에 생산된 전통기록물과 형태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3. 콘텐츠 형태별 현황

<표 2> 전체 정보시스템 중 각 콘텐츠 형태별 제공 사이트 수

고서	고문서	고지도	고신문	책판	기타
81개	58개	12개	11개	6개	44개
77.1%	55.2%	11.4%	10.5%	5.7%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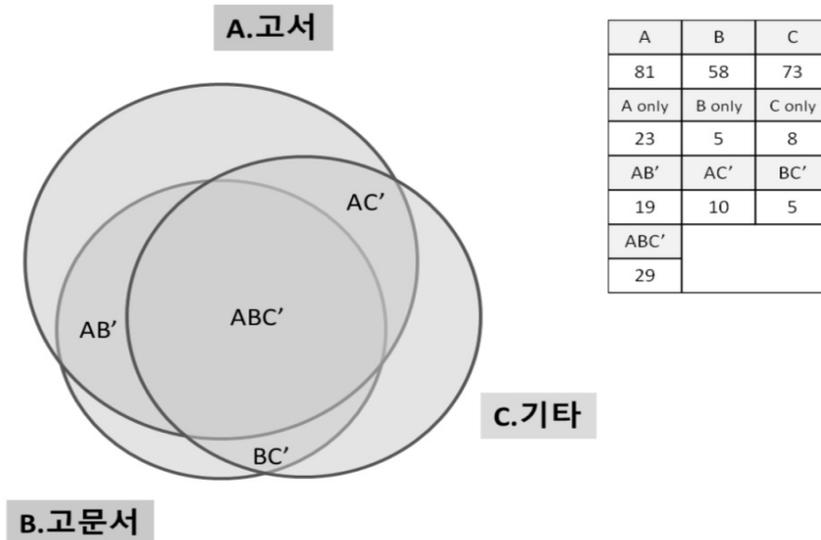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105개의 정보시스템 중 고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81개(7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문서 58개(55.2%)로 나타났다. 그 중 고서와 고문서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는 48개로 45.7%를 차지했다.

<표 3> 각 정보시스템별 제공하는 콘텐츠 형태 수

콘텐츠 형태 제공 수	0개 ³⁾	1개	2개	3개	4개	5개
사이트 수(개)	6	34	34	18	9	4
백분율(%)	5.7%	32.4%	32.4%	17.1%	8.6%	3.8%

각 정보시스템별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 개수를 살펴보면, 1개 또는 2개의 형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각각 34개(32.4%)로 가장 많았다.

3) 콘텐츠 형태 제공 수가 0개인 사이트가 나타나는 이유는 용어 사전DB의 경우, 전통기록물에서 추출한 용어 및 용어 설명만을 제공하여 전통기록물의 콘텐츠 형태로는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6> 콘텐츠 형태 Overlap

한편, <그림 6>⁴⁾은 전체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 콘텐츠 형태별 제공의 overlap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항목은 A.고서와 B.고문서 그리고 고서, 고문서를 제외한 것 중 한 개의 콘텐츠 현황이라도 제공하는 경우 C.기타로 분류하였다. 고서와 고문서를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은 AB'와 ABC'를 합하여 총 48개이며, 고서를 제공하는 시스템 중에서 고문서를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의 비율은 59.2%, 고문서를 제공하는 시스템 중에서 고서를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의 비율은 82.7%로 나타났다. 이는 고서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수가 고문서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수 보다 많은 것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콘텐츠 유형별 현황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전통기록물 콘텐츠에 대한 서지정보,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번역본을 제공한다. 서지는 문헌의 제목, 저자, 형식, 소재, 소장처 등을 표시한 정보 또는 문헌 목록을 의미하며,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이용과 검색 시스템을 위한 필수 정보이다. 그러나 17.1% 사이트가 서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처럼 지도의 제목과 해제, 지도 이미지는 제공하지만 소장처 또는 발행연도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이트 또는 용어 설명만을 제공하는 사전 DB가 포함된다.

한편, 내용 검색을 위한 필수 요소인 원문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은 51.4%인 반면,

4) 표에 사용된 ' 표시는 only를 뜻한다.

연구자들이 잘못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선호하지 않는 원문텍스트에 비해 직접 전통 기록물을 볼 수 있어서 선호하는 원문이미지는 71.4%의 비교적 많은 사이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전체 정보시스템 중 각 콘텐츠 유형별 제공 사이트 수

서지정보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 텍스트	번역본
		제공	뷰어설치	인쇄 가능		
87개	71개	75개	11개	37개	51개	29개
82.9%	67.6%	71.4%	10.5%	35.2%	48.6%	27.6%

〈표 5〉 각 정보시스템별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 수

콘텐츠 유형 제공 수	0개 ⁵⁾	1개	2개	3개	4개	5개
사이트 수(개)	6	9	26	21	26	17
백분율(%)	5.7%	8.6%	24.8%	20%	24.8%	16.2%



〈그림 7〉 같은 콘텐츠 유형을 제공하는 사이트 Overlap

각 정보시스템 별 콘텐츠 유형 제공 수(〈표 5〉)는 2개 또는 4개의 유형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26개(24.8%)로 가장 많다. 〈그림 7〉은 같은 콘텐츠 유형을 제공하는 사이트 overlap을 도식화 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식화의 편의를 위해 제외된 번역본 외에 서지정보,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모두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가장 높은 비율인 34.3%로 총 36개이며, 서지정보와 해제, 원문이미지를 같이 제공하는 사이트는 15개로 14.3%이다. 즉, 서지정보와 해제, 원문이미지만을 같이 제공하는 사이트의 수는 총 51개로 50%에 가까운 48.6%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시스템 중 서지정보

5) 콘텐츠 유형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는 '한인 발해 근현대신문잡지 DB'와 같이 서지사항 없이 단순한 소장 목록만 제공하거나,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과 같은 사전 DB등이 이에 해당한다.

(82.9%), 해제(67.6%), 원문이미지(71.4%)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지정보와 원문이미지를 같이 제공하는 사이트가 13개, 서지정보와 해제를 같이 제공하는 사이트가 11개로 뒤를 이었다. 이 때, 같이 제공되는 콘텐츠 유형에서 빠지지 않는 콘텐츠 유형이 서지정보임을 알 수 있다. 서지정보는 전통기록물에 대한 제목, 저자, 소장처, 발행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모든 정보시스템이 5가지 콘텐츠 유형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가장 시급한 유형부터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콘텐츠 유형의 우선순위 및 해당 사이트 수

No	콘텐츠 유형	개수
1	서지정보 + 원문텍스트 / 서지 + 원문이미지	44/66
2	서지정보 + 원문텍스트 + 원문이미지	38
3	서지정보 + 원문텍스트 + 원문이미지 + 해제	36
4	서지정보 + 원문텍스트 + 원문이미지 + 해제 + 번역본	17

서지정보는 전통기록물 콘텐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반드시 제일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 검색을 우선시 하는 정보시스템이라면 서지정보와 원문텍스트를, 전통기록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경우에는 서지정보와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원문텍스트와 원문이미지 중 먼저 구축할 콘텐츠 유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두 가지 경우가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구성 요소이다. 다음으로는 서지정보와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통기록물을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 전통기록물에 대한 설명인 해제 정보를 추가하고, 더 나아가 모든 전통기록물에 대한 번역본을 제공하면 가장 완전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전통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도와 전통기록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5. 검색 필드별 현황

전체 정보시스템 중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102개로 97.1%의 사이트가 기본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세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52개(4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자 또는 고대 한국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 다국어 입력기는 41개의 사이트에서 제공한다.

상세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모두 통합검색을 100%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다국어 입력기까지 모두 제공하는 사이트가 24.8%로 나타났다.

<표 7> 전체 정보시스템 중 각 검색 필드별 제공 사이트 수

통합검색	상세검색	다국어 입력기
102개	52개	41개
97.1%	49.5%	39%

<표 8> 각 정보시스템별 제공하는 검색 필드 수

검색 필드 제공 수	0개 ⁶⁾	1개	2개	3개
사이트 수(개)	3	36	40	26
백분율(%)	2.9%	34.3%	38.1%	24.8%

6. 분류 필드별 현황

전체 정보시스템 중 각 분류 필드 제공 사이트 수는 주제별 분류가 46개(43.8%), 시기별 분류가 40개(38.1%), 제목별 분류가 39개(37.0%), 형태별 분류가 36개(34.3%) 순으로 나타났으며, '디렉토리'라는 항목명을 사용한 사이트는 13개로 12.4%가 있다.

<표 9> 전체 정보시스템 중 각 분류 필드별 제공 사이트 수

디렉토리	제목	용어	시기	인명	지역	형태	주제	사부분류	기타
13개	39개	2개	40개	22개	28개	36개	46개	3개	21개
12.4%	37.1%	1.9%	38.1%	21%	26.7%	34.3%	43.8%	2.9%	20%

<표 10> 각 정보시스템별 제공하는 분류 필드 수(디렉토리 제외)

분류필드 제공 수	0개 ⁷⁾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사이트 수(개)	1	39	31	13	11	8	1	1
백분율(%)	1%	37.1%	29.5%	12.4%	10.5%	7.6%	1%	1%

각 사이트별 분류 필드 제공 수는 디렉토리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필드만 계산하였다. '디렉토리' 항목은 정보시스템에서 분류 필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한 항목으로 '디렉토리' 항목 안에 나타난 분류 필드는 나머지 9개 분류 필드에 중복 체크했기 때문이다.

- 6) 검색 필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나 '외규장각 의궤-유일본'과 같이 소장 자료 목록만 제공하는 사이트와 '대동문화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 소장처' 검색 필드 없이 분류 필드만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 7) 분류 필드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는 '고서서지시스템'으로 검색 필드만을 제공한다.

정보시스템별로 제공하는 분류 필드 수는 1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37.1%로 가장 많고 2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29.5%로 그 다음이다. 분류 필드를 1개 또는 2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66.6%로 나타났다. <표 11>은 <표 10>에서 30% 이상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분류 필드인 주제, 시기, 제목, 형태 중 2가지 분류필드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 수를 나타낸다.

<표 11> 2가지 분류필드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 수

주제+시기	주제+제목	주제+형태	시기+제목	시기+형태	제목+형태
21개	14개	14개	16개	13개	13개

7. 제공 서비스별 현황

전체 정보시스템 중 용어사전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30개(28.6%), 영어, 중국어, 일어 페이지와 같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28개(26.7%), 한자자전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2.9%로 나타났다. 한편, 용어사전을 제공하는 사이트 30개 중에는 용어사전 DB 6개가 포함되어 있다.

<표 12> 전체 정보시스템 중 각 제공 서비스별 제공 사이트 수

용어사전	한자자전	다국어 서비스
30개	3개	28개
28.6%	2.9%	26.7%

<표 13> 각 정보시스템별 제공하는 제공 서비스 수

제공 서비스 수	0개	1개	2개	3개
사이트 수(개)	57	38	7	3
백분율(%)	54.3%	36.2%	6.7%	2.9%

각 정보시스템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수는 용어사전, 한자자전, 다국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가 57개(54.3%)로 가장 많았고, 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38개(36.2%),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7개(6.7%), 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3개(2.9%) 순으로 나타났다.

8. 이용 대상별 현황

총 105개의 사이트 중 이용 대상자가 일반인인 정보시스템은 32개(30.5%)이다. 일반인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해제와 번역문의 제공이다.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은 원문

이미지와 함께 사건개요(해제)와 번역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요 독립 운동가와 주요 독립 활동을 따로 정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상세한 분류 필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검색어를 모르더라도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원문텍스트와 번역본, 주석, 원문텍스트와 번역문 비교보기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전문가용 정보시스템은 73개(69.5%)로 일반인용에 비해 약 2배가 많다. 대다수의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디지털고문헌실’의 경우 각각 원문텍스트만 제공하거나 원문이미지만 제공할 뿐 번역문을 제공하지 않아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록물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분류 필드의 하위 네비게이션 항목의 제목을 한자로 표기하여 브라우징 또한 어렵다. 다음은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 제 1권의 해제이다. 아래의 해제는 많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대장경이나 불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 이외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장경에 포함된 여러 경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경전 목록집이다. 먼저 문목(門目) 총류(總類)라는 제목 아래 각 품의 이름과 권수 및 품수 등을 정리해 놓았다. 전체 경전을 8부문(部門)으로 나누는 뒤, 다시 총 60개 품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제1 수표대각선용부위중생(首標大覺先容附爲衆生) 부문에는 제1 선왕품(先王品)에서부터 제8 상주품(常住品)까지 해당한다. 예컨대 선왕품에서는 석가보(釋迦譜),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등을 인용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보를 소개하며, 제2 인지품(因地品)에서는 비바사론, 과현인과경, 석가보 등을 인용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8 부문의 마지막 품인 제60 유통품(流通品)에 이르기까지 각 품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들을 뽑아서 집대성해 놓았다.

V. 결론

전통기록물은 기록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기록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료 조사는 2016년 8월과 9월, 2달 간 진행하였으며, 대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인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국가기록유산’의 하위 사이트, 관련 사이트, 연계 사이트를 조사하고, 각 링크별 관련 사이트와 연계

사이트로 범위를 넓혀가며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총 105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였고, 이를 운영기관별로 분류 및 정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중회에서 제공하는 성씨별 족보 시스템과 같이 개인 또는 중친회 단위의 정보시스템 등은 제외하였다. 105개의 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은 35개의 상위 기관과 46개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가장 많은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29개의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콘텐츠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콘텐츠의 정확한 시기 정보를 알 수 있는 83개의 사이트 중에서 과반수가 조선시대 이후의 자료만을 제공하며, 일제 강점기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49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통기록물의 대부분이 조선 중기 이후에 생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 이전 시대의 전통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조선 이전의 시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고서, 고문서, 고지도, 고신문, 책판 등에 대한 콘텐츠 형태별 현황은 고서와 고문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각각 81개(77.1%)로 고문서 58개(55.2%)이며, 고서와 고문서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는 48개(45.7%)이다. 현재 정보시스템이 제공 중인 콘텐츠 형태는 대부분 고서와 고문서로 책판, 고지도, 고그림 등에 대한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고서와 고문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전통기록물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전통기록물에 대한 서지정보,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번역본에 대한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는 전통기록물의 유통과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지정보,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를 모두 제공하는 사이트가 38개로 36.2%이며, 해제와 번역본까지 5가지 유형 모두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17개, 16.1%로 나타났다. 전통기록물을 유통하고 서비스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원문이미지와 원문텍스트의 서비스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보다 폭넓은 이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제와 번역본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검색 필드 현황에서는 97.1%의 사이트가 기본적인 검색기능인 통합검색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검색을 위한 상세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49.5%, 한자 또는 고대 한국어 입력을 돕는 다국어 입력기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39%로 정확한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세 검색 기능과 다국어 입력기를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해당 서비스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키보드 작업 없이 사이트에 대한 브라우저를 돕는 분류 필드는 주제별, 시기별, 제목별, 형태별 분류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37.1%의 사이트가 1개의 분류필드를 29.5%의 사

이트가 2개의 분류 필드를 제공하여 66.6%의 사이트가 1개 또는 2개의 분류필드만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분류 필드는 해당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용어를 모를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다양한 분류 필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본 연구는 용어사전, 한자사전, 다국어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용어사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28.6%,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26.7%, 한자사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2.8% 순으로 나타났다.

쉬운 해제와 번역문 및 분류 필드 제공을 바탕으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 대상을 나눈 결과, 전문가용 정보시스템이 69.5%로 일반인용 정보시스템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전통기록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번역문 및 분류 필드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을 기관별, 시기별, 콘텐츠 형태별, 콘텐츠 유형별, 검색 필드별, 분류 필드별, 제공 서비스별, 이용 대상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만 105개로 서비스 제공 중인 정보시스템의 수는 적지 않으나, 그에 비해 서비스의 구축 현황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공 중인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기관별로 각기 따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이트별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나의 전통기록물에 대한 자료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거나, 현재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통기록물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서 어떤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보다 완전한 정보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시기별, 형태별 전통기록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하며, 전통기록물 연구를 통해 구축된 콘텐츠에 대한 원문텍스트, 상세한 해제, 번역본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목록에 구축하지 못한 사이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과, 목록으로 구축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하지 못한 점, 각 조사 항목의 범위가 포괄적인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효율적인 전통기록물 정보 제공을 위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목록 구축, 전통기록물의 디지털화와 번역 작업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순애. 1997. 한국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4): 83-112.
- 강순애. 2007.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서지학연구』, 38(0): 5-46.
- 김길수. 2014. 고기록물(古記錄物) 정보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3): 199-220.
- 김명자. 2012. 현장의 소리: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 지식콘텐츠를 구축하다. 『북현사립』, 30(0): 183-191.
- 김승우. 2015. 『고문헌 원문 서비스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서교육전공.
- 남권희. 2003. 한국학 자료 전산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국학연구』, 2(0): 327-370.
- 안상민. 2007. 『고문서 웹서비스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기록보존학과.
- 조형진. 2006. 고문헌의 디지털화 성과 한국학 자료 전산화의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91-41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Soon Ae. 1997. "The Project and Prospects of Old Documents Information System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4): 83-112.
- Kang, Soon Ae. 2007. "The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Private Old Document DBs in Kore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38(0): 5-46.
- Kim, Gil-Soo.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Information System for the Old Record Material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7(3): 199-220.
- Kim, Myunja. 2012. "Sound of the field: Korean Studies Resource Center, building Korean knowledge content." *the Bokhyeon Sariim*. 30(0): 183-191.
- Kim, Seung Woo. 2015. *A study on digital service of old books and its improvement strategy*. M. A. thesis., Yonsei University.
- Nam, Kwon-hee. 2003. "The Problems of the Computerization of Korean Study Data and its Desirable Direction." *Korean Studies*, 2(0): 327-370

- An, Sang Min. 2007. *A Study on Real Situation of Web Service for Historical Manuscripts and Measures for Its Advancement*. M. A.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ho, Hyung-Jin. 2006. "A Study of Digitalization Performance of Sinological Resour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391-413.

〈부록 1〉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목록과 사이트 주소

No	시스템 이름	사이트 주소
1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http://cksm.kangwon.ac.kr/
2	남명학고문헌시스템	http://nmh.gsnu.ac.kr/
3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ritk/index.do
4	고려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korea.ac.kr/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s://riks.korea.ac.kr/root/
6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7	관보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8	내고향 역사알기	http://theme.archives.go.kr/next/oldhome/year/yearBinderArchive.do?key=191&archive_id=0001550572
9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10	서양 고지도들 통해 본 한국	http://theme.archives.go.kr/next/oldmap/sun01_3.do
11	일제시기건축도면아카이브	http://theme.archives.go.kr/next/plan/viewMain.do
12	조선총독부 기록물	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13	지적아카이브	http://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14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15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16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서고	http://collection.nl.go.kr/
1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18	국립중앙도서관 웹지도 검색	http://www.dlibrary.go.kr/Map/main.jsp
19	근대문학종합목록	http://literature.nl.go.kr
20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
21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22	외규장각 의궤	http://uigwe.museum.go.kr/
23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http://library.history.go.kr/
24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25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26	전자 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27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30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디지털고문헌실	http://siminlib.koreanhistory.or.kr/
31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www.krpia.co.kr/
32	(국가지식 DB) 한국가사문학	http://www.gasa.go.kr/
33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34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3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36	Korea A to Z	http://www.koreaa2z.com/
37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38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go.kr/
39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http://www.e-coreana.or.kr/
40	국가기록유산	http://memorykorea.go.kr/
41	외규장각 의궤 -유일본	http://www.memorykorea.go.kr:7779/webs/arGyujang/Books/BookMain.html
42	구한말 민사 판결문	http://khd.scourt.go.kr/
43	조선고등법원판결문	http://khd.scourt.go.kr/JO/main/index.jsp
44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
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No	시스템 이름	사이트 주소
46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	http://kyujanggak.snu.ac.kr/dohae/main/index.jsp
47	조선시대 토지자료 서비스	http://kyujanggak.snu.ac.kr/yan/main/main.jsp
48	지리지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49	의례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50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51	한인 발행 근현대신문잡지 DB	http://www.eahistory.or.kr/bbs/board.php?bo_table=5_01
52	대동문화연구원	http://ddmh.skku.edu/
53	한국유경관센터	http://ygc.skku.edu/
54	AEAS 한국경학자료시스템	http://koco.skku.edu/index.jsp
55	AEAS 한국족보자료시스템	http://jokbo.skku.edu/
56	고서저지시스템	http://oldbook.skku.edu/
57	주자학용어사전시스템	http://jjh.skku.edu/index.jjh
58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59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60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
61	기호유학 고문헌 통합정보시스템	http://giho.cnu.ac.kr
62	한국고전 종합DB	http://db.itkc.or.kr/
63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64	나를 닮고 인재를 기르는 조선의 교육	http://edu.ugyo.net/ground/edu_document01.jsp
65	멀티미디어로 보는 조선시대 가례	http://form.ugyo.net/front/index.do
66	목판아카이브	http://mokpan.ugyo.net/index.do
67	스토리테마파크-일기와 생활	http://story.ugyo.net/front/index.do
68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http://life.ugyo.net/
69	유교넷	http://www.ugyo.net/
70	조선의 눈으로 보는 사행록 역사 여행	http://saheng.ugyo.net/
71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http://yn.ugyo.net/
72	유교문화박물관	http://www.confuseum.org/
73	경성일보 미술 이미지 및 기사 DB	http://www.casasia.org/page.asp?pageid=conference41&pagenum=060200
74	미디어 가운 고신문	http://www.bigkinds.or.kr/mediagaon/goNewsKeyword.do
75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or.kr
76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77	장서각	http://jsg.aks.ac.kr/
78	장서각 기록유산DB	http://visualjoseon.aks.ac.kr/
79	조선왕조실록 사전	http://encysillok.aks.ac.kr/
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8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82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http://glossary.aks.ac.kr/
83	한국학자료센터 장서각	http://royal.kostma.net/
84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 소장처	http://archive.kostma.net/Family/
85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http://rinks.aks.ac.kr/
86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
8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88	경상북도 내방가사 DB	http://waks.aks.ac.kr/site/gasa
89	민세안재홍 전집 자료 집성 및 DB화	http://waks.aks.ac.kr/site/minsei/
90	사법품보 번역 및 역주	http://waks.aks.ac.kr/site/sabuppumbo
91	성호전서 정본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2103
92	옛 편지 날말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07-HZ-2001

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No	시스템 이름	사이트 주소
93	정본 여유당전서 DB	http://waks.aks.ac.kr/site/dasan
94	제국신문 DB	http://waks.aks.ac.kr/site/jekuk
95	조선 관습 자료 해제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7
96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http://waks.aks.ac.kr/site/diplomatic_word
97	추안급국안 정서화 및 DB기반 구축	http://waks.aks.ac.kr/site/chuangukan
98	한국 근대 신어 DB	http://waks.aks.ac.kr/site/new_word
99	한국주역대전	http://waks.aks.ac.kr/site/juyok
100	한국학 자료포털	http://www.kostma.net/
101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	http://www.kostma.net/FamilyTree/
102	한국학자료센터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archive.kostma.net/letter/letterList.aspx
103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kostma.net/
104	한국학학술정보관 -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105	한국학자료센터 호남권	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

<부록 2> 운영기관별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

상위기관	기관명	사이트 번호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강원대학교	1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도서관 문천각	2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3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 6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7, 8, 9, 10, 11, 12, 1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14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15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6, 17, 18, 19, 20, 2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3, 24, 25, 26, 27, 28, 29
	부산시민도서관	30
누리미디어	누리미디어	31
담양군	담양군	32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33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34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5
동방미디어	동방미디어	36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3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8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도서관	39
문화재청	문화재청	40, 41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42, 43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4, 45, 46, 47, 48, 49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50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5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유경편찬센터	5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54, 55, 56, 57
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58
전통문화연구회	전통문화연구회	59
종로도서관	종로도서관	60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도서관	6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6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63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64, 65, 66, 67, 68, 69, 70
	한국국학진흥원, 영남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71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72
한국미술연구소	한국미술연구소	73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74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7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학술정보관	100,101,102,103,104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105